

■ 독립에 얽힌 거짓말들

루이스 곤살레스 데 알바(Luis González de Alba)

멕시코 전역에서 벌어지는 축제 중에서 가장 뿌리 깊은 대중 축제는 9월 15일 밤 11시에 벌어지는 ‘독립의 외침’이다. 이 축제는 마리아에게 바치는 종교적 헌신을 능가하는 과달루페 성모 축제보다 한층 더 보편화되었으며, 다른 어떤 종교 축제보다 범국가적이다. 그 이유는 멕시코인들이 행운을 쫓아 나날이 더 많은 종교에 빠져들고 있는데, 그렇게 종교가 많음으로 해서 결국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다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외침’에 감응해서 광장을 가득 메우고, 가족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타코를 엄청나게 먹고, 테킬라가 흥수를 이룬다. 온갖 종류의 바에서 멕시코 식 축제가 벌어진다. 하지만 게이 바에서는 많은 손님들이 목동 옷차림을 하는데, 매년 대단한 성황을 이룬다.

그러나 사실은 1810년 9월 15일 토요일 밤 11시에 아무 일도,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부왕령은 조용히 잠들었고, 대부분 지역에서 즐거운 16일 일요일을 보냈다. 유일하게 초조한 사람들은 케레타로의 공모자들이었다. 하지만 돌로레스 교구의 이달고 이 코스티야(Hidalgo y Costilla) 신부는 밤 11시에 종을 울리지도 않았고, “스페인 것들을 추포하라”고 소리치지도 않았다. 일요일이 되자 미겔(Miguel) 이달고 신부는 7시인가 8시인가에 차분하게 미사를 집전했으며, 많은 농장 일꾼들이 미사를 울



독립의 외침 (9월 15일 밤 멕시코 소칼로 광장)

려야 한다는 계율도 지킬 겸, 귀가 길에 시장에 들러 물건도 사고 팔 겸해서 인근에서 왔다. 일단 교회 마당이 가득 차자, 신부는 일꾼들에게 가서 몽둥이나 낫이나 되는 대로 구해오라고 했다. 혼란은 그렇게 시작되어서 고작 10개월 남짓 이어졌을 뿐이고, 케레타로, 과달라하라, 멕시코시티 근교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삼각지대 너머로까지 확대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결국 이달고는 독립주의자들과 공감하지 못한 채 소외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투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달고가 저지른 범죄와 지나친 강탈 때문이었다.

이달고의 친구이자 독립주의자인 주교 아바드 이 케이포(Abad y Queipo)는 그 해가 가기 전에 이미 이 어정쩡한 소란을 일으킨 수장들을 체포하고 파면하고 총살하고 참수했으며, 수장들의 목, 특히 미겔 이달고의 목을 철제 새장에 담아서 과나후아토 주 그라나디타스의 알온디가 길모퉁이마다 매달아놓았다.

독립이 이뤄진 것은 10년 후인 1821년 9월 27일이며, 총성 하나 없었고 피도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봉기군 지도자들은 새 부왕 후안 오도노후(Juan O'Donojú)와 협정을 맺어서 독립을 이루었는데, 봉기군 지도자들 역시 협정, 즉 어느 한쪽의 처참한 패배가 아니라 협상을 토대로 동맹을 맺었다. 봉기군인 비센테 게레로(Vicente Guerrero)와 게레로를 진압하라고 부왕 측이 파견한 인물인 아구스틴 데 이투르비데(Agustín de Iturbide)는 대화를 나누고 포용했다. 분명 그랬다. 아카템판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 협정을 학살이나 승리 혹은 패배가 아니라 ‘아카템판의 포용’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외침’이 1년 후에 있을 200주년 기념식을 의당 준비해야 할 만큼 중차대한 사건이었는가? 아주 간단하다. 그런 일은 없었다. 어쩌면 바로 그러한 사실 때문에 오히려 반응이 미온적이고 관련 의견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모른다. 200주년에 의례히 따르기 마련인 축제의 열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다. 기념 기둥이고 아치고 탑이고 기념비고 간에 선물 탁자에 놓을만하다고 수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아마도 그 잔치판이 우리와 전혀 무관하기 때문이리라.

출생증명서 자체를 날조하는 국가는 출발이 나쁘고 아주 나쁘다. 그렇다면 국가적 축제, 멕시코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를 어디서 만들어낸 것일까? 두 가지 우연에서다.

1. 포르피리오 디아스(Porfirio Díaz)의 생일이 9월 15일이었기 때문에, 디아스의 긴 재임기간 내내 이 날짜에 맞춰 대통령 궁에서 귀족들과 (당시까지만 해도 ‘좌익’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상류층, 외교단, 고위 성직자와 사제들을 상대로 만찬을 열었다. 아래

쪽 소칼로 광장에서는 폭죽과 타코를 많이 준비해서 야간에 대중 축제를 벌였다. 충성스런 국민들도 종신 대통령 생일을 축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2. 1896년 포르피리오 디아스는 돌로레스의 교회에 있던 유서 깊은 종, 즉 이달고가 9월 16일 아침에 미사를 집전하기 위해 친종을 옮겨다가 대통령 궁 중앙 발코니에 설치했다. 14일에 설치가 끝나자, 15일 대통령 생일을 위해 판당고 악단이 왔다. 매년 포르피리오 디아스는 밖으로 나와 충성스런 국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포르피리오 디아스는 역사적인 이 종을 올리면 좋겠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밤이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종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아무런 외침도 없었다. 적어도 기억에 남을만한 외침은 없었다.

그게 전부다. 하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일이 9월 15일, 즉 거리로 나가 불꽃을 구경하고 추로를 먹는 날인지, 아니면 텔레비전으로 군대 열병식을 보는 16일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런데 정확하지 않다는 점은 결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아무리 무식쟁이 양키나 프랑스 인이라도 “7월 3일인가 4일인가? 7월 13일인가 14일인가?” 따위의 질문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배웠더라도 멕시코 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고개를 갸웃거린다.

리베라토 가라바토(Liberato Garabato)가 1852년의 풍습을 기록한 덕분에(후일 스페인 인들은 우리 소설가들이 인물을 지어내고는 엘토당토않은 이름을 붙였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포병의 예포와 불꽃놀이를 동원해 15일 밤부터 축제를 시작하는 관습이 포르피리오 디아스 시기보다 앞서 있었다는 자료가 남아 있다. 하

지만 ‘외침’은 없었다. 혁명의 최고 지도자이자 대통령이었던 베누스티아노 카란사(Venustiano Carranza)가 “우리에게 조국을 안겨다 준 영웅들” 명단을 목청 높여 읊어나가는 일과 타종식을 최초로 결합한 것 같다.

독립은 허공에서 표류했다.

스페인 령 아메리카 지역을 독립시키자는 진지한 제안들 중 하나는 1783년에 학식 있고 대담한 스페인인 페드로 파블로 아바르카 데 볼레아(Pedro Pablo Abarca de Bolea)가 했다. 아란다의 백작인 데 볼레아는 스페인에서 예수회를 추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듯 그렇게 했다. 아란다 백작은 스페인 개혁 군주 카를로스 3세에게 올린 비밀 보고서에서 갖 독립한 미국, 즉 모두 북대서양 연안 위쪽에 면해 있던 초기 13개 주를 언급하면서 예지적 직관으로 왕에게 고한다. “그 지역에서 법을 먼저 그리고 다음에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대국의 면모를 공고히 해나간다면 내일은 응대해질 것입니다. [...] 종교의 자유가 있고 광대한 영토에 사람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고, 새로운 정부가 여러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의 노동자와 기술자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 그러면 몇 년 지나지 않아 제가 지적한 대국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란다 백작의 계몽된 인식이 그리는 세상과, 모렐로스(Morelos) 신부가 가지고 있는, 남부끄럽고 역행적인 ‘국가적 정서들’에 담긴 어리석고 폐쇄적이며 가톨릭 중심적이고 아둔하며 암울한 인식이 그리는 세상간의 차이에 주목해보라. “다른 종교를 허용하지 말고 가톨릭만이 유일한 종교가 되기를 ... 교황, 주교들, 사제들로 이어지는 교회의 위계에 따라 교리가 유지되기를,

왜냐하면 신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식물은 뿌리 뽑혀 마땅하기에.” 만약 모렐로스를 적절한 시기에 제거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불행하게도 상원과 의원들은 여전히 “국가적 정서”(고유의 편견을 국가 뜻으로 돌리는 경향이 과거에 이미 있었다)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멕시코는 북한과 함께 유일하게 에너지 투자를 외면하고 국가적 기술력도 보유하지 못한 분야인 새로운 유전 탐사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다. 그들은 마치 “... 스페인 것들은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스페인의 우방이면서 우리 종교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프랑스 것들과 손을 잡으라”라고 하는 모렐로스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종교 재판관이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유럽 전체에 프랑스 혁명의 이념, 즉 세속적이고 민주적이며 평등주의적인 이념을 전파시킨 나폴레옹의 자유주의 군대다.

그러한 편협하고 광신적인 떨거지들을 떠받들고 있던 말인가? 그렇다. 왜냐하면 똑같은 결함을 지금도 계속 견뎌내고 있으며, 그 결함으로 인해서 아직도 가난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과달루페 성모의 기적으로 풍요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란다 백작은 계몽 정신과 정치가로서의 전망을 가지고서 카를로스 3세에게 아메리카 식민지들을 스페인에서 독립한 왕국들로, 아니면 하다못해 형제 국가로라도 변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생각은 영국이 캐나다로부터 호주까지 이어지는 민족 공동체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다. 하지만 스페인 군주 정치의 특징이 장기적 안목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누에바에스파냐¹⁾에서 초기 프란시스코 교단이 활성화했던 올리브와 포도의 재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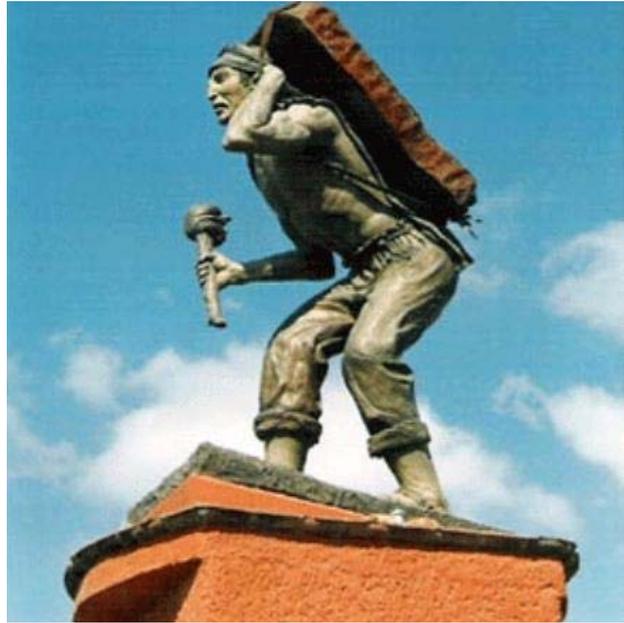
1) 스페인 식민 통치 시기에 스페인의 부왕이 통치한 지역이다. 오늘날의 멕시코에 해당하는 지역과 거의 일치한다.

금지하기 시작했던 일만 떠올려보아도 알 수 있다. 그 같은 어리석은 조치가 100년 보호무역의 첫 표현이었다. 식민지 경제를 활성화해서 제국이 부유한 나라들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대신, 식료품 상인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이베리아반도에서 수입되는 포도주, 올리브유와 (제도혁명당원들은 “불공정하다”고 했을) 경쟁관계에 있던 대농장을 갈아 엎어버렸다.

카를로스 3세가 좀 더 오래 살았거나, 평범하기만 한 아들 카를로스 4세가 계승하지만 않았더라도, 아란다 백작의 권고는 볼리바르(Bolívar)의 꿈과 유사한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 꿈은 스페인과 형제 같고 동등하면서도 상호 개방적인 관계를 갖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유한 아메리카 국가들이다. 독립 전쟁도,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광업, 농업 등 누에바에스파냐 경제 전반의 파탄도 없이 말이다. 스페인과 협약을 맺음으로써 그리고 자유로운 입법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독립 말이다. 마치 카를로스 3세가 곡물 거래를 자유롭게 하고 실험 농업을 하고, 가톨릭교회에 제한을 가하면서 생산적인 면에서는 쓸모없이 “죽어버린 손들”의 수중에 있던 교회 땅을 경작하게 함으로써 추진했던 과정처럼, 간단히 말해 후아레스(Juárez) 이전의 후아레스주의와 파괴도 없고, 모렐로스주의자들이 끼어들 틈도 없는 독립 말이다. 어찌면 18세기부터 멕시코의 후속 세대들을 민주주의 이념에서 교육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되었더라면, 지금과는 달리 최고의 악,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를 갖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독립의 이념은 수십 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표류하면서 문맹인 민중들 사이에서보다는 계몽된 계층 사이에서 가공되었다. 볼테르와 루소의 사상은 누에바에스파냐 귀족들 연회장에나 등장하는 주제일 뿐이었다.

썩쓸한 예를 들자면, 과나후아토의 지사 후안 안토니오 데 리아뇨(Juan Antonio de Riaño)가 1810년의 공모자들 중 상당수를 문학 토론모임의 손님으로 초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기만 해도 된다. 플로레스카노(Florescano)와 힐(Gil)은 멕시코 총사에서 “데 리아뇨는 미겔 이달고와 친구였으며, 평생 누더기나 걸치던 추종자들은 수년 후 이 계몽된 지사를 살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피필라(pípila)라 불리던 후안 안토니오 데 리아뇨

한 부왕이 독립을 이끈다.

300년간 멕시코의 명칭이었던 누에바에스파냐를 독립시키기 위한 다음 계획은 한 부왕이 주도했다. 그것은 아란다 백작의 은밀한 보고서 같은 권고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시도한 무모한 계획이었다. 1808년 부왕 호세 데 이투리가라이(José de Iturrigaray)는 누에바에스파냐를 독립시킬 국민회의를 결성하자고 멕시코시티 시의회가 제출한 제안을 받아들였다. 평화적인 발의안을 제출한 사람들은 시의원 후안 프란시스코 아스카라테(Juan Francisco Azcárate), 변호사 프란시스코 프리모 데 베르다드 이 라모스(Francisco Primo de Verdad y Ramos), 사제 멜초르 데 탈라만테스(Melchor de Talamantes)였다. 소식이 퍼져 나가 시정자문단모

임(bule)에까지 전해졌다. 이 모임은 후일 과달라하라의 ‘애꾸눈 루페르타(La Tuerta Ruperta 아마도 리베라토 가라바토의 여성 친구로 보인다)’가 열곤 했던 것과 유사했다. 멕시코시티의 고기 공급을 독점하고 통제했던 가브리엘 예르모(Gabriel Yermo)라는 이름의 비스카야 사람이 그 모임에서 쿠데타를 모의했는데, 이후 19세기 내내 우리가 겪어야 했던 수십 차례의 쿠데타 중 첫 번째 쿠데타였다. 그렇게 해서 입장을 같이 한 레알 아우디엔시아(Real Audiencia)와 함께 부왕을 해임하고 투옥했다. 그것은 1808년의 일이었는데, 정확히 9월 15일의 일이었다. 프리모 데 베르다드와 탈라만테스는 산 후안 데 울루아로 떠났다. 그러니 9월 15일에 외친 유일한 외침은 다름 아니라 부왕이 계획한 독립에 맞선 예르모의 외침이었다. 하지만 1808년의 외침이었다.

되찾은 나라

300년 간 스페인 침입자에게 억압받다가 무기, 법, 정의의 힘으로 재건한 나라라는 개념보다 더 거짓되고 지지받지 못하며 해로운 몇 가지 생각들.

오늘날 멕시코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의 원주민 나라가 존재한다. 르네상스 시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가 달랐던 것보다, 모든 부족이 문화, 언어, 종교, 관행, 풍습, 문명화와 사회 조직의 정도에서 훨씬 더 다양했다.

그렇다면 외세 억압 300년 만에 되찾은 단일한 하나의 나라가 존재했다는 생각을 어디서 만들어내었을까? 당연히 스페인에서 만들어내었다. 거기 말고 또 어디가 있겠는가? 1492년에는 스페인 인들이 아메리카를 발견한 사건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어족의 마지막 보루인 그라나다를 점령한 사건도 일어났다. 그것은

단지 300년이 아니라 그보다 대략 세 배에 육박하는 세월, 즉 아랍이 점령한지 800년 만의 일이었다. 스페인에서는 아랍 이전에 하나의 나라가 분명 존재했다. 아랍인들은 프랑스까지 진출했으며 샤를 마르텔(Charles Martell)이 론세바예스 길목에서 걸음을 멈추게 했고, 대략 그 즉시 반대 방향의 물결이 일기 시작해 칼리프 영토의 경계를 스페인 남쪽 절반 부근에 형성했다.

그 경계마저도 수공할 수 있는 결정적 경계가 아니었다. 8세기 내내 스페인 인들(스스로 그렇게 여겼다)은 국경을 공략하며 남쪽으로 밀어붙여 국토를 수복했다.

공통의 언어(카스티야 어), 공통의 제도(자치구와 군주제), 켈트-그리스-로마-서고트로 이어지는 공통의 전승을 가진 스페인인, 기독교인, (그만그만한) 백인들은 무어족의 마지막 거점 그라나다를 점령할 때까지 스페인 국경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였다. 그래서 800년에 걸친 아랍의 점령은 끝났다. 무슬림의 정복이 마무리된 시간과 대략 동시에 시작되었던 재정복이었다.

스페인 인들은 의심의 그림자가 없었다. 켈트 스페인의 패망 후에는 로마 스페인이 있었는데, 비리아토(Viriato)라는 영웅을 낳은 누만시아의 전설적인 포위전으로 스페인이 로마 제국에 편입되었다. 그곳은 제국의 단순한 속주가 아니라 황제들을 배출한 곳이었다. 그 중에는 하드리아누스(Adriano)와 트라야누스(Trajano)라는 아주 위대한 두 왕이 있다. 또한 세네카(Séneca), 루카누스(Lucano) 그리고 투박하고도 유쾌한 마르티알리스(Marcial) 같은 철학자와 문학자들도 배출했다. AD 476년에 로마가 멸망하자, 중세 초기의 서고트 스페인이 출현한다. 그것은 수공이 가고 인정할 수 있는 점령이고 정복이다. 반면에 아랍의 정복은 그렇지 않다. 비록 아랍이 사람들에게 유전자를 남겼고(남부 스페인 사람들은 북부 사람들보다 가무잡잡하다) 중요한 문화적 유산, 유전자,

미임(meme 역주: 문화 유전자)을 남겼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말이다. 하지만 아랍인들의 점령이 끝나자, 그야말로 끝나버렸다. 비록 여러 왕국으로 여전히 분열된 상황이었지만 하나의 스페인이 있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페르난도와 이사벨 왕이 그라나다로 입성할 때, 스페인은 완전히 수복된다.

무어 족은 단지 피부색과 관련된 것만을 남긴 것이 아니라 말도 남겼다. 왜냐하면 가무잡잡하다는 말 moreno는 “무어(moro) 족처럼 보인다”라는 말 moruno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moro는 검은다는 뜻의 그리스어 mavro에서 생겨났는데, mauro로 변했다가 au가 불어나 영어에서처럼 o로 바뀌어 moro가 된다. 하지만 무어 족이 떠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 이상 칼리프도 에미르(emir 역주: 아랍 귀족)도 없다. ‘성서의 종교’, 즉 유대교와 기독교를 향한 무슬림의 종교적 관용 역시 사라진다. 종교 재판소는 세례를 받든지 아니면 화형을 피해 떠나든지 하라고 모든 무어 인을 협박한다. 재 수복된 하나의 스페인이 1492년부터 존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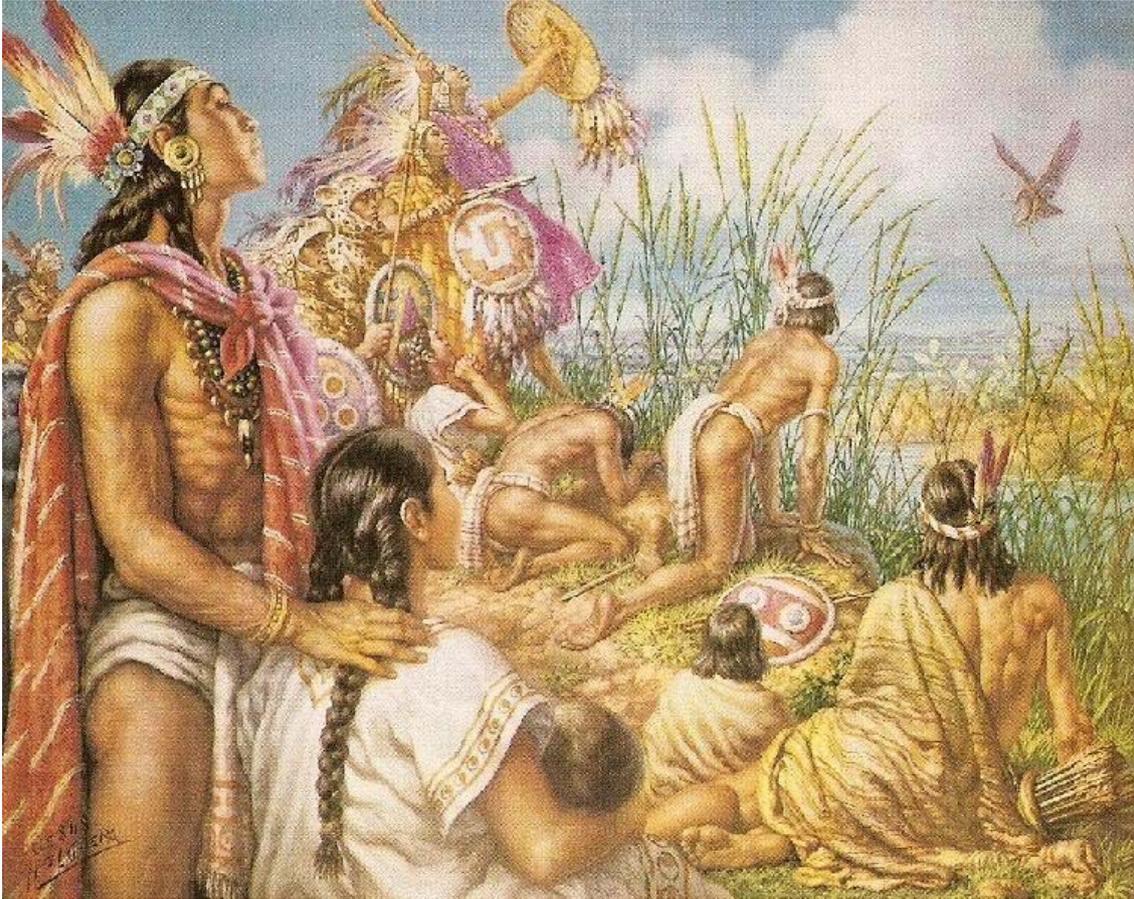
투르크의 그리스 점령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다. 투르크 족은 콘스탄티누스 이후 동로마 제국이었고 나중에는 비잔틴 제국이었던 지역을 점령해나갔는데,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그리스어 Constantinoú-polis, 즉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뜻이다. 1453년 오스만 투르크가 수도를 함락했다. 오스만 투르크는 중동 지역 뿐 아니라 유럽 중심부, 즉 발칸 지역, 불가리아, 루마니아로까지 뻗어나갔고 심지어는 비엔나의 입구에까지 이르렀다. 세르반테스는 레판토에서 투르크-무슬림의 진출을 저지했던 기독교도 측 함대에서 팔 한 쪽을 잃었다.

멕시코가 스페인에서 독립한 바로 그해 그리스도 오스만 제국에서 독립했으니, 바로 1821년이였다. 스페인에서와 마찬가지로

투르크 족도 떠나면서 유전자와 풍습을 남겼지만, 그리스라는 국가는 콘스탄티노플 함락까지 2천년이란 세월 동안 존속했고 투르크의 지배 350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존재를 이어갔다. 물론 투르크 족은 유전자와 미임(문화 유전자)을 남겼다. 가령, 투르크가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한 성씨들(glu-glu로 끝나는 성씨들)이 존재하고 투르크의 유산인 여러 관습, 의상, 춤, 음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리스는 그리스였고 다시 그리스가 되었다. 스페인은 스페인이었고 다시 스페인이 되었다.

반면에 스페인 이전의 멕시코는 존재하지 않았다. 현재 소통의 편의를 위해 에르난 코르테스(Hernán Cortés) 이전의 이 지역을 멕시코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그 같은 어법이 아닌 의미에서의 멕시코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나의 나라, 하나의 국민, 하나의 언어, 하나의 멕시코는 없었다. 틀락스칼라 인이나 오토미 인은 메시카 인이 아니라 적이었고, 멕시코 인은 더더욱 아니었다. 멕시코 인이라는 명칭은 멕시코라는 국명과 더불어 필요해서 만들어진 명칭이요, 우리 자신을 원주민 문화의 유산으로 간주하고 메소아메리카 문화들 중 가장 최근의 문화이면서 가장 덜 중요한 문화에 의탁하면서, 정치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뿐 아니라 역사적인 면에서도 구심점이 있는 나라라고 자리매김한 명칭이었다. 메시카 족 혹은 아스테카 족은 1300년이 되어서도 수렵-채집 부족 상태에 머물면서 뱀을 잡아 먹는 독수리를 찾아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음을 잊지 말자.

AD 1300년 무렵이면 마야 인들이 도시를 옮겨 다니며 제국을 세운지 천년, 마지막 제국이 몰락해서 거대한 구조물을 밀림이 다시 뒤덮은 지 400년, 중국인과 메소포타미아 지역민, 그리고 이집트를 세운 나일 강 유역 주민들이 수렵과 채집으로부터 벗어나 정착해서 땅을 일구고 동물과 식물을 순화시킨 지 적어도 8천



뱀을 찾아 먹는 독수리를 발견한 메시카 족

년은 지난 시점이다. 그러한 일이 곧 도시와 국가의 기원이 되었다. AD 1300년이면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폐허로 방치된 지 3천 년이 지나고, 중국인이 거대한 제국에 성을 쌓고 아테네나 로마나 공히 수차레에 걸쳐 건설되고 파괴된 지 오래되고, 베네치아가 바다의 맹주로 군림하던 시절이었다. 또 1300년이면 유럽 남부 전체에 르네상스의 바람이 불던 시기였다. 그런데 우리 역사의 주축으로 삼아온 아메리카 주민들, 즉 아스테카 인들은, 1만 2천 년 전 중국인들이 그랬듯이, 여전히 수렵인-채집인이었다. 아스테카를 근간으로 국민 정체성을 형성하려고 하기에 1만 2천년은 적지 않은 뒤처짐이다.

틀테카 인이나 마야 인, 사포테카 인이 아니라 아스테카 인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아스테카 인들은 패자를 나타내는 최상의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실 때문에 병적이고 광적인 매력을 느끼게 된다.

아스테카 인들을 향한 무한한 증오와 혈세가 아스테카의 폭압 정치에 예속되었던 아주 다양한 주민들을 결속시켰으며, 에르난 코르테스가 제국의 수도를 점령하는 데 여러 부족의 부대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역사에서 잊기로 했다.

그리고 300년 동안의 잉태기가 지난 후,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국가의 산파 역할을 한 사람들은 이달고나 이투르비데 같은 스페인의 후손들이었다. 스페인이나 그리스는 지배를 받고 있었든 아니었든 이름이 있었다. 누에바에스파냐나 북 아메리카의 독립은 이름을 모색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멕시코였다. 패배를 상기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였다. 우리는 승리도 승자도 좋아하지 않는다.□

[번역: 강성식]

루이스 곤살레스 데 알바- 작가. 최신작은 『또 다른 나날들, 또 다른 해 [年]들 *Otros días, otros años*』이다. 일간지 <밀레니오 *Milenio*>의 공동 발행인으로 활동 중이다.
